



SK이노, 전사 차원 집중 봉사주간 운영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31일 2주 동안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등 9개 자회사 구성원이 참여하는 집중 봉사주간(volunteer week) 활동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2800여명의 구성원들은 이번 봉사주간에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봉사 활동, 환경보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SK이노베이션



한화그룹, '맑은학교 환경운동회' 개최

한화그룹은 지난 1일 경남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거제 지역 초등학생과 한화오션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맑은학교 환경운동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친환경 OX 퀴즈 ▲분리배출 던지기 등 놀이에 환경을 접목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운동하며 자연스럽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다. /한화그룹



KB증권, 제주도 마을경제 활성화 팔 걷어

KB증권은 지난 2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 제주도내 주요 4개 기관과 '마을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왼쪽 두 번째) 강경수 KB증권 제주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사진)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사회관계망(SNS) 릴레이 캠페인 '바이바이(Bye-Bye)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2일 기보에 따르면 김종호 이사장은 황병우 DG B금융 회장 추천으로 캠페인으로 참여했다.

김 이사장은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장 볼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재활용 제품을 적극 이용하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을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위험 표지판” 인증 하세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직접적인 안전행동을 유도하는 '위험 표지판' 부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증 참여 이벤트는 캐시워크 모바일 앱에서 참여 가능하고, 위험 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산업현장의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일반근로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표지 부착 완료자에게는 상품 소진 시까지 커피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임의제출물 압수 시 임의성 증명은 검사의 몫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그런데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해 다툴 수 있다. 이처럼 임의제출물에 대한 임의성에 다툴 수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A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등).

A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그런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됐다.

A는 현행법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한 적이 있었다. 경찰서로 연행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후 A가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 맞는지의 관해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없이 압수하기 위해선 임의제출자인 A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 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분명히 고지하고 이를 조서에 남겨둬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A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 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 A는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임의제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할 경우 나중에 진술을 바꾸더라도 이를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가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면서 임의성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 제출에 관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

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데(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즉, 임의제출된 압수물에 대해 그 임의성에 대해 다툴 수 있을 때에 다툴 수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 및 압수물을 임의제출 할 경우 나중에 생각을 바꾸더라도 이를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를 조서에 남겨둬야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의제출물의 임의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검사에게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도록 촉구한 뒤 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호국영령 희생 기억해야”... K-방산기업, 현충원 참배·봉사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참배·헌화
LIG넥스원 모역 정비·정화 활동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현충일을 앞두고 현충원을 찾아 참배 및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방산계열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는 국립서울현충원(동작구 현충로 소재)을 방문해 합동 참배와 헌화 봉사를 비롯한 모역 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현충원 참배는 한화그룹 방산계열사의 대표적인 공동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한화그룹은 2011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현충원 참배와 모역 정비·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한화 방산계열사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로 '사업을 통해 나라에 보답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초 국립현충원에서 애국 시무식을 열



어성철(오른쪽)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및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임직원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합동 참배를 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신입사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현충원 모역정화 활동을 벌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IG넥스원

고 있다. 또 현충원 모역 정비 활동과 더불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전유공자 대상 명절 음식 나눔 위문 봉사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펼치고 있다.

LIG넥스원은 지난달 3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모역정화봉사활동을 펼쳤다.

LIG넥스원은 2004년 서울현충원에서의 애국 시무식을 계기로 20년 넘게 한결같이 호국보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국가방위를 책임지는 방산기업에 새롭게 등지를 둔 신입사원들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은 회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30모역에서 잡초 제거, 조화 교체, 태극기 꽃기 등의 모역 정화활동을 했다.

LIG넥스원은 현충원 모역정화활동 외에도 애국시무식, 군 유자녀를

위한 장학재단 후원, 1사1병영 부대 위문품 후원, 사업장내 호국보훈 현수막 설치, 사내 유튜브·사보를 통한 대내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같은 날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호국공원 충훈탑과 국립서울현충원을 각각 찾아 호국영령에게 참배하고 헌화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장범식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학교 만들 것”

(숭실대학교 총장)

숭실대 개교 127주년

서울숭실세움 70주년... 감사예배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이 대학 개교 127주년 감사예배에서 “민음의 교육으로 세상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고 역설했다.

숭실대는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 영락교회에서 숭실대 개교 127주년 및 서울숭실세움 7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숭실대 구성원과 동문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해 자진 폐교의 의



숭실대학교 개교 127주년 및 서울숭실세움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9일 감사예배가 열렸다. /숭실대

미를 되새기고, 1954년 개교식 당시를 회고했다.

장범식 총장은 감사인사를 통해 “현재의 숭실대를 있게 한 환경적 목사와 영락교회 성도들의 큰 헌신에

감사드린다. 민음의 교육으로 세상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감사와 다짐을 전했다.

/이현진 기자 ihj@

인사

- ◆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장 박태호 △북미법인장 조반니 발렌티니(Giovanni Valentini) △일본법인장 나정균
-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박철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이재희
- ◆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김문식
- ◆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 △경영 기획본부장 조창연
- ◆ 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장 이재필
- ◆ 파이낸셜뉴스 △부국장대우 △AD기 획국장직무대행 현갑호
- ◆ 남도일보 △편집국장 김경태 △미디어국장 윤종재
- ◆ 성신여대 △교학부총장 이원호 △대학원장 이성근